

With Bible

ISSUE #201807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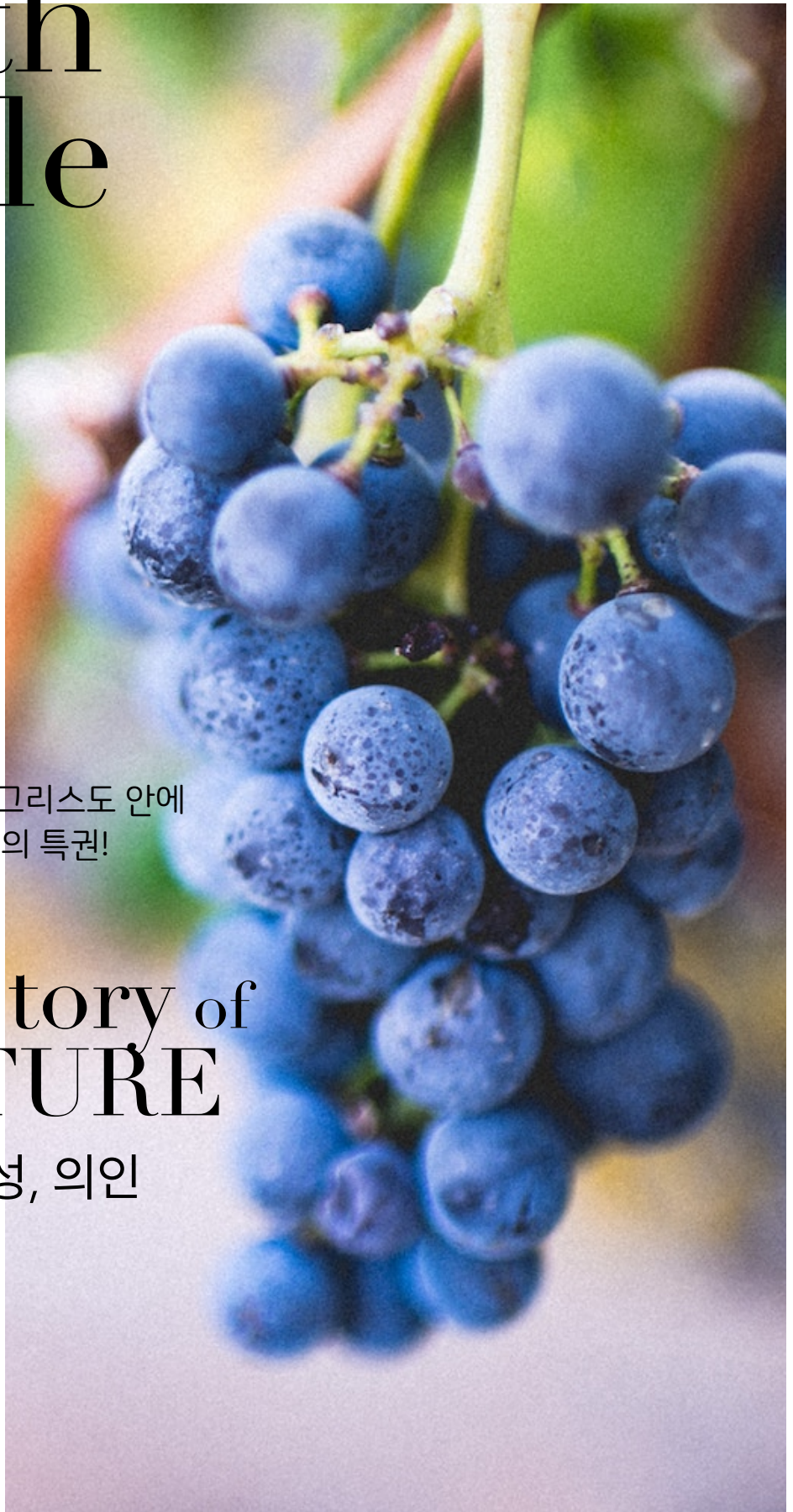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2nd Story of LECTURE

오해된 정체성, 의인

WORSHIP

예배





위드 바이블 캠프 관련 정보와 말씀 주제 자료 등을 나눌 수 있는 위드 바이블 캠프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세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영생 안에 거하는 특권

가끔 연예인들이 TV 방송에 나와 특별한 인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인맥이 가족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그 특별한 관계에서 얻을 혜택과 유익에 부러워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당신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인맥,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나무와 연결된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붙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맨틱한 드라마 대사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4).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인맥을 통해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통해 충분한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인맥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요 15:8).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룹니다(요 15:7).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칩니다(요 15:1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인맥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맞이하는 특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특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특권!



WORSHIP: 예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께 열중하는 사람들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질 수는 없다.

- Bob Kauflin

위드 바이블 캠프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성도를 섬깁니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이 풍성히 채워집니다. 삶을 나누고 짐을 서로 지며 나누는 교제 속에서 오래 품어온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특별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세요! 2018년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합시다!

8

위드 바이블 캠프가 열리는 달입니다.

23-25

올해 위드 바이블 캠프는 23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100

선착순 100명을 받습니다. 예약은 8월 15일까지!



3X3

3개의 설교, 3개의 특강이 있습니다.

?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LECTURE #2: 오해된 정체성, 의인

구원 받은 자들을 성경은 '의인' 혹은 '성도'라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정체성은 오해되기도 합니다. 오해된 '의인'이라는 정체성은

누군가에게는 죄 짓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완벽함을 추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보상 심리로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마치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아 가게 됩니다.

과연 의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죄와 무관한 삶일까요? 완벽한 삶일까요? 이번 캠프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